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동지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땅을 나누라 I

(여호수아 13:1 ~ 19:51)

이종윤 원로목사

이스라엘은 본래 땅이 없던 민족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다. 여호수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땅의 분배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13장은 후반부의 첫 부분이다.

가나안 정복의 날들이 몇 차례의 전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갈렘은 여호수아 14장 7 - 10절에서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사십오 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팔십오 세로되" 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보낸 38년을 그가 말한 45년에서 빼면 가나안 정복 기간은 7년으로 계산된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많아 늙었다고 했다(13:1). 그는 갈렘 보다 나이가 많을 것이며 그가 죽을 때 나이가 110세이었음을 감안할 때 (24:30) 아마도 그 당시 나이는 90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때 큰 문제는 삼림이 무성하고 아직도 점령해야 할 남은 땅이 매우 많았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지파를 따라 땅을 나누어주고 그 곳에 거주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셨다.

I. 땅의 분배

13 - 17장에 나타난 분배는 요단 동편이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진 것이다. 남쪽에는 유다 지파, 북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졌다. 이같은 배치는 군사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요단 동편과 가나안 남북에 비교적 강한 다섯 지파를 배치함으로써 다른 지파를 보호한 것이다.

1.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3:8 - 33)

이들은 모세에 의해 이미 결정된 지파들이다. 그들이 요단 강을 건너기 직전 요단 동편이 가축을 기르기에 적당한 곳이어서 가축과 가족을 남겨 놓고 자기들이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터이니 이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 하므로 모세가 조건부 허락을 한 것이다(민32장)

2. 유다지파(15 - 63)

남쪽 지방이 유다 지파에 분배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유다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 넷째다.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하므로 장자권을 빼앗겼고(35장), 둘째와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살해한 주범들로 야곱은 이들로 인해 자기 이름에 화를 끼쳤고 자기 이름에 냄새를 나게 하였다고 격분했다(창34장).

장자권이 처음 세 형들로부터 제외되면 유다에게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 돌아갔고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음으로 다른 아들들의 두 배가 되는 땅을 받았다(대상5:1, 2).

그러나 유다는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다. 왕족이 유다에게 나오고 마침 내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게 왔다(창49:8 - 12).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는 40년 간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통치하면서 영토를 확장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많이 지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이스라엘 영광의 금자탑을 쌓은 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다.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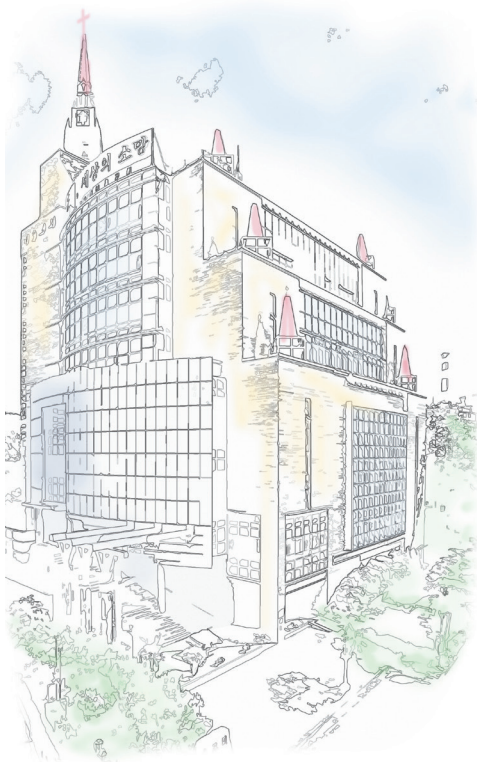
이들은 율법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성화 시키며 거짓 신과 산당을 폐하였고 유다의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정복 시엔 예루살렘을 취할 수 없었다(수15:63).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여부스 사람들로 부터 빼앗았다(삼하5:6, 7).

3.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16:1 - 17:18)

토지 분배 과정에서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의 다섯 딸에게 중요한 땅이 배분되었다(17:3 - 6). 대개 아들들에게 주어졌으나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었다. 이들은 모세에게 왜 우리 아버지의 몫이 없느냐고 항의하여 아들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요구가 옳다 하시어 이를 허락했다(17장, 민27:4). 이같은 일들은 이미 모세의 글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했다. 따라서 당시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며 슬로브핫의 딸들도 모세의 책에 호소를 하므로 땅을 얻어냈다.



다락방 리더 교육 개강

9월 5일 수요일 2부 예배 후, 101호 다락방 모임 개강 : 9월 7일(금)

여름을 맞아 잠시 방학에 들어갔던 다락방 리더 교육이 9월 5일 수요일 2부 예배 후 101호에서 개강한다.

교구 간사, 다락방장, 부다락방장들은 필히 참석 바란다. 다락방 모임은 9월 7일(금) 개학한다.



요한계시록 중강

오늘 찬양예배 시 아모스 서 개강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 1:1-3

2017년 4월 23일부터 시작한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가 지난 8월 26일 찬양예배 시 중강하였다.

요한계시록은 강해하기에 매우 난해한 성경책으로 성도들이 많이 접하지 못하지만 꼭 한 번은 공부하고 이해해야 할 책이다.

본 요한계시록 강해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힘을 가지게 해 주는 귀한 강해였다. 1년 4개월 여 강의 해 주신 이종윤 원로목사님께 감사드린다.

이번 주일 찬양예배부터는 조원영 목사님의 아모스서 강해가 시작된다.

아모스서는 물질적 풍요로움과 정신적인 형식화로 인한 영적 타락을 통렬히 비판한 책으로, 특히 지도자들의 부패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향한 인권과 인격에 대한 학대를 비판하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책이다. 무엇보다 아모스서는 "정의를 향한 외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진리와 공의를 갈망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아모스서는 갈급한 마음을 충족하게 채워줄 귀한 말씀이 될 것이다.

2018년 8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8월 26일 주일 저녁찬양 예배 시 2018년 세번째 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 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년 짝수달(격월) 3째주 주일 저녁찬양 예배시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8월은 교회사정으로 4째주에 거행하였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중 하나인 "천국시민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위원회 세례교육부(임시 105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번 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유아세례자 : 제노 오 희열

계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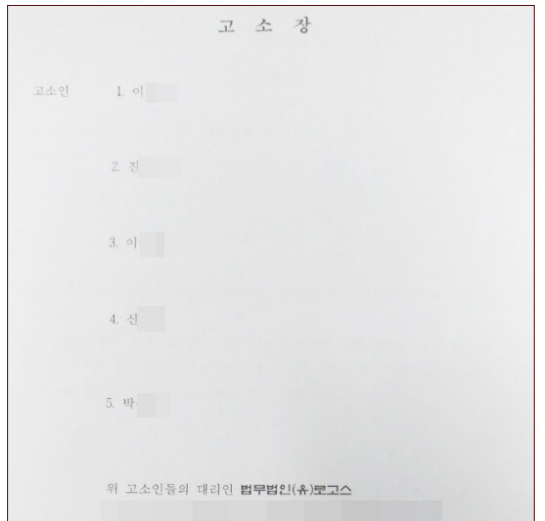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김혜란 김경태·손문자 백소현 송정윤 이근희 지성철 오정수·이영희 차주호·박수련 강명석·차선혜 유운순 박동우·백승경 김대훈·유보영 전광영·김인숙 박정자 우선자·홍혜련·홍혜란 김예환·서상근 김석봉·박동희 서은석·김미성 김복녀 한세희 이만구·권성자 최인애 주화인·하규미 김지수·김순진 심상필 오후근 오영숙 최인수·고완순 신은미 송재월 송재현 권한준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류충기 집사 무혐의 처분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유증기	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 처분하였으므로 알려드립니다.
			2018년 08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건번호	2018년 형제 36145 호		
본일자	2018년 08월 22일		
처분과명	처분결과		
	혐의없음(중거불응판)		

지난 3월 9일, 박노철 목사측이 불법용역들과 함께 교회를 훼손하면서 진입하는 과정에서 류충기 집사가 소화기를 분사하여 폭행을 당했다면서 박노철 목사 측이 0표, 진0남, 이0홍, 신0하, 박0권 등 5인이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였다.

지난 8월 22일 서울지방검찰청은 류충기 집사에게 폭행죄에 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미리마이니 학교 오디션장면



에세키학교 점심시간: 키데라와 사과

케냐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케냐는 8월중순이 지나면서도 현재 아침 12도에 낮엔 27도를 오고 가는 추운 겨울을 체험하며 많은 기도의 힘과, 사랑, 후원으로 8월 27일 3rd Term 학기시작을 앞두고 모든 학교 식사, 간식, 교재, 장학금, 교사기도회 및 교사세미나를 준비하며 주님의 자녀로 교육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를 가득 채워 온 동네 주민들과 가족들이 4개월 동안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끌어 올려 저장하고 가족들이 밖에서 먹을 수 있도록 물통도 설치해 놓으면 깨끗한 물을 좀 더 오래도록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만들어 줘야 하는 또 하나의 기도제목입니다.

(600평)를 필요로 하지만 1/4에이커(300평)로 결정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결정과 추진을 하기 전에 마지막 기도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이곳에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는 학교로 세워지길 뜻을 같이하는 후원자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1. 370명의 아마니 음악학교 교육과 급식:

나이로비지역 4곳(나이오스학교, 루아라카학교 2곳, 김보학교), 주자지역 2곳(띠리리카학교, 미리마이니학교), 아마니 주자센터 합창단 2팀, 케냐 서부지역 키수무, 까까메가지역 3곳(키시야니고등학교, 비히가초등학교, 문지티고등학교) 총 9지역 11개학교, 370명의 학생들에게 18명의 지도교사들이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갖고 음악교육과 급식을 제공하며 정서, 문화적인 취향계층의 학생들에게 복음과 교육을 통하여 희망을 갖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2. 마사이지역 에세기초등학교 점심 급식

5년째 305명의 매일 키데라(콩과 옥수수 삶은 식사)로 주고 있고 사과, 과자, 사탕을 학기에 한번 특별식으로 줍니다. 음식은 뜨거운데 손으로 하나씩 쥐워 먹고 밥그릇이 없어 남은 컵, 찌그러진 그릇에 받아 먹는 아이들... 스푼을 300개 사다가 하나씩 나누어 주었는데 몇 번 먹다가 집에 갖다 놓고 다시 손으로 먹고 있습니다. 밥그릇을 사서 하나씩 주고 싶어도 관리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3. 27명의 찬양신학교 학생들은 교사들의 헌신적인 가르침으로 매주 화, 수요일 온종일 수업으로 모두 9개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국가인정 이론 시험 준비와, 차등을 둔 실기지도로 개인의 실기향상뿐만 아니라 점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 3년전 서울교회의 후원으로 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인 큰 댐을 만들어 6번의 우기가 있었지만 흙먼지와 함께 불과 얼마 안 되는 빗방울이 전부였기에 물이 고이지 않고 안타까움이 많았으나 금년 5, 6월의 우기에 3년 만에 풍성한 단비가 내려 저수지

* 새롭게 진행되는 사역

1. 특수 아동들을 위한 클래스 운영:

띠리리카학교에 특수아동 학급이 있다고 하여 방문하였습니다. 그 교실에 특수시설은 전혀 없고 환경조차 말할 수 없이 열악한데다 한 교실에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아동 33명을 함께 수용하여 교육하는 실정입니다. 감사한 것은 현직 교사들과 교장선생님의 관심과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마니 찬양신학교 출신으로 3명의 교사를 구성하여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학교를 9월학기부터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이미 4년제 대학 교육학 전공자와 수화가 가능한자를 주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 마사이지역 캠프 :

305명으로 급성장한 마사이지역 에세기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케냐의 대부분의 학교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매년 진행하는 성경학교나 의료캠프 등을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특히 외딴지역의 학교는 예외일 수 없다. 리더십학교(찬양신학교)는 이번에 전도여행의 일원으로 2년의 학제를 마치기 전에 의무적으로 17명이 말씀과 찬양캠프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 교회의 젊은 이들이 이 캠프에 참여하여 하늘과 땅 그리고 식구들과 같은 소와 염소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아이들을 같이 섬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찬양신학교 건축 :

아프리카 진출과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중국의 무상 혹은 장기융자로 날마다 새로운 도로와 다리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갑니다. 찬양신학교와 지역문화센터를 겸하는 기능을 하기 위하여 최소 1/2에이커

4. 아마니합창단 한국 찬양공연:

창단 7년째로 5년 동안 케냐 국내에서 많은 활동을 하던 아마니합창단이 한국교회의 초청을 받고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봉사단체의 많은 초청을 바라고 참여를 기대하며 은혜의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공연기간: 2019년 4월5일(금) ~ 2019년 5월3일(금)까지 한국 전지역

· 참가인원: 단원 20명+스텝 4명 전체 24명

· 공연초청 문의 : 김낙형

maestronhk@hanmail.net

070-4126-9160/카톡/페북

2018년 8월 케냐 김낙형·오정녀선교사

기도제목

1.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많은 먼지와 매연과 위험한 교통 상황속에서 오고 가는 사역지마다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 주시길
3. 서울교회가 빨리 회복되어지고 모든 후원자 강건함과 사업장의 번성과 기도 동역자의 강권적 기도의 힘으로 3학기 83명의 장학금 702명의 식비, 간식비 18명의 스텝들의 사례비, 행정비, 생활비 등 재정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4. 새롭게 진행되어질 사역들을 위해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5. 아들 경근이의 건강과 보람된 직장생활, 결혼의 축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 22:20~21)

김애리 집사(1교구)

2017.4.23 ~2018.8.26 1년4개월에 걸친 요한계시록 공부를 마쳤습니다. 성경통독을 해오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접하면 항상 답답하고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읽긴 읽었지만 뭔가 안개속을 헤매다 대충 출구를 찾아 급히 나온것 같은 미진함과 갈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칼빈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쓰지 않았다고 하니 인터넷을 찾아 듣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항상 마무리 못한 숙제처럼 느끼던 중 원로목사님의 요한계시록강해는 갈급한 중에 단비 같았고, 교회의 환란중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수 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록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내일을 보고 종말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아름다운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일 저녁마다 배우시고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어려운 여러 상황속에서도

원로목사님을 붙들여 주시고 말씀을 풀어 주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찬양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시던 첫강해 설교에서 마음 한편에 새겨진 내용이 있어 적습니다

"성경은 다른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설교방법이에요. 성경해석의 원리에요. 이것이 개혁주의의 신학입니다. 추측하는 해석은 성경해석이 못 됩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서 나왔고 성경으로 해석되고 성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은 이 중요성을 몸소 체험한 형제들입니다. 지금 서울교회에서 진행하는 '전성도 성경읽기와 더불어 잊어버리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읽기를 권합니다. 또한 읽기 전 2017.4.23 첫강을 듣고 시작하시면 선명해 지실겁니다.

* 모바일에서 보는 법 :
www.iseoulchurch.or.kr/mobile ⇨ 설교영상
⇨ '예수그리스도의 계시'로 검색

찬양예배 전 교회 회복 기도회

찬양예배 전 오후 4시 30분부터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교회가 불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찬양과 기도 뿐이다.

찬양과 기도는 사탄의 결박을 푸는 가장 큰 무기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란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9월1일(토) 사랑의 쌀운동, 국제 올림바타르대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9월3일(월) 박순오목사 "설교주제잡기 700선시리즈" 출간 감사예배에서 설교한다.

■ 금주의 식사 : 밥버거

박상훈 집사 이해원 집사
(지녀 첫 돌을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금주부터 개학하는 다락방 리더 교육과 다락방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성도의 교제와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2.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하여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를 뜨겁게 하게 하옵소서.

3. 모든 송사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스려 주옵소서.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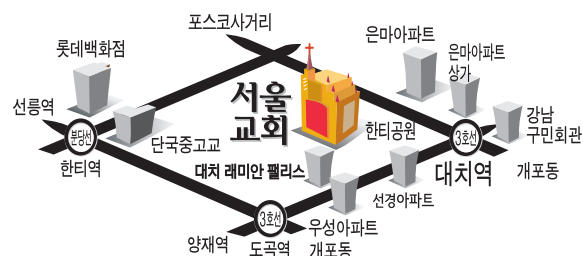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9월2일	주일	겔 15-16		대상 15-23	
9월3일	월	겔 17:1-20:31		대상 24-29	
9월4일	화	겔 20:32-22:31		대하 1-6	
9월5일	수	겔 23-25		대하 7-15	
9월6일	목	겔 26-28		대하 16-21	
9월7일	금	겔 29-32		대하 22-29	
9월8일	토	겔 33-35		대하 30-36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